



스기모토 다케시 씨

1939년 10월 29일생

1981년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어부

미나마타병이 귀병취급을 받을 무렵,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받아온 상황,미나마타병으로 불편해진 몸을 간신히 움직이면서 고기잡이를 나갔지만 잡아온 물고기가 팔리지 않아, 어려운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가족들이 힘을 합쳐 힘내서 살아온일들, 재판까지 하면서 행정과 짓소와 싸워온 역사들과 당시의 사회배경 등을 이야기함.

1998년에 미나마타시의 환경 마이스터로 인정받음.

2003년 10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뒀. 미나마타시 후쿠로 재주

미나마타병이 원인불명의 기병취급을 당할 무렵, 사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파묻힌 사람들을 나는 몇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그 때, 오염된 물고기를 먹었는지, 갑자기 까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고양이가 발광(發狂)해서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병이 발생한 집은 소독되고, 마치 전염병취급이여서, 동네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에서, 장모가 기병병상이 나타나자 “(기병은 전염되니) 마을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살행당하기도 하고, 배를 멈춰서 끈을 끊어버리기도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기병이 전염된다고 쌀도 우리한테 팔지 않는 등 차별도 당했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 아내와 둘이서 죽을 곳을 찾아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들의 정 만이 유일한 마음을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저도,18살때부터,팔다리가 저리는등 미나마타병 특유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도 미나마타병에 걸리고, 불편한 몸으로 겨우 고기를 잡아왔지만 미나마타의 물고기는 사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을 만든 찻소에게 책임을 인정하게하고,적어도 가족들에게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하게 해주려고, 미나마타병 환자구제활동에 뛰여 돌아다녔습니다. 당시의, 미나마타는 짓소의 도시이였기 때문에 짓소를 적으로 활동하는 우리들은 미나마타시민들의 적이었습니다. 이윽고 미나마타병재판이 시작되고, 뒤에서 재판을 취하시키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지만, 가족들의 격려에, 끝내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짓소는 수은을 배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물론 우리도 여전히 나쁜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저는,그냥 제 체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짓소는 왜 몇 십년간이나, 오염물질을 버려왔는가?” “찻소는 왜 몇 만명의 피해자들을 내고서는 아직도 영업정지되지 않았는가?” “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쁜사람 취급을 당했는가”등, 나의 체험담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일을 생각해 주시면,모두들 안심하고 사이좋게 생활할수 시대가 가까워질 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